



인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신흥국 전략

인도로 돌아온 외국인,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

인도 주식·채권시장 외국인 수급 개선되고 있으나, 지속 여부는 불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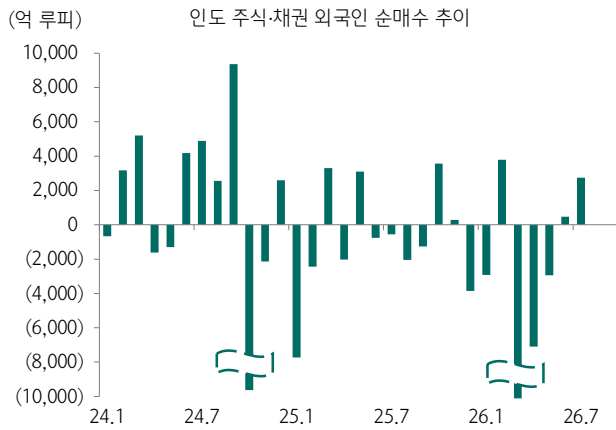
외국인 자금이 6월 인도 채권시장으로 유입된 데 이어, 7월 들어 주식시장에서도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인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우선 채권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크게 작용했다. 인도 정부는 6월 초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적용되던 이자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외국인이 한도 없이 매입할 수 있는 FAR(Fully Accessible Route) 적용 채권의 범위를 확대해 투자 수익성과 시장 접근성을 동시에 높였다. 여기에 인도 국채의 블룸버그 글로벌 종합채권지수(Bloomberg Global Aggregate Index) 편입 가능성을 선반영한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6월 이후 외국인의 인도 채권 투자는 크게 확대됐다.

증시의 경우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데다, 글로벌 자금이 AI·반도체 비중이 높은 한국과 대만 증시에 집중된 영향으로 상반기 내내 대규모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어졌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인도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진 가운데, 6월 말 종전 협상 기대를 바탕으로 국제유가가 고점 대비 빠르게 하락하자 인도 경제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완화됐고, 외국인 수급 역시 순매수로 전환됐다. 또한 AI·반도체 관련주의 단기 과열과 수급 쏠림에 대한 부담이 부각되면서 일부 글로벌 자금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AI 노출도가 낮은 시장으로 분산된 점도 인도 증시의 수급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최근 달러/루피 환율이 다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며 루피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제유가 상승 시 달러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한다. 미국·이란 종전 기대와 함께 하락했던 국제유가는 협상이 지연되고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면서 다시 반등했고, 이에 따라 루피화에 대한 절하 압력도 재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6월 미국 CPI와 P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긴축 우려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한 만큼, 달러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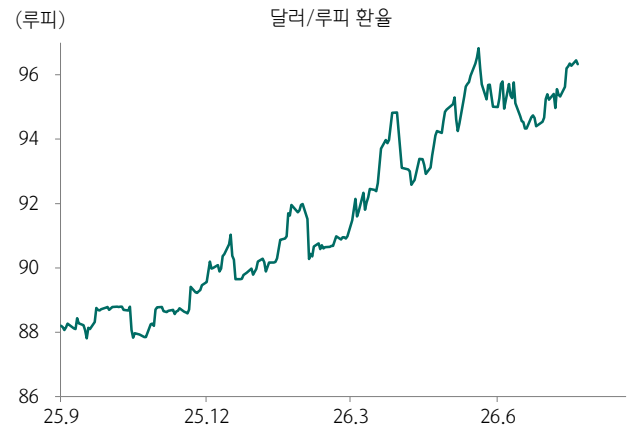
외국인 자금 유입은 루피화 약세를 완충하는 요인이지만, 국제유가 상승과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달러/루피 환율의 상승 압력을 충분히 상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루피화 약세가 장기화되거나 추가로 심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환차손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 자금 유입도 제약될 수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 최근의 수급 개선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무엇보다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환율 부담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

도표 1. 인도 주식·채권시장 외국인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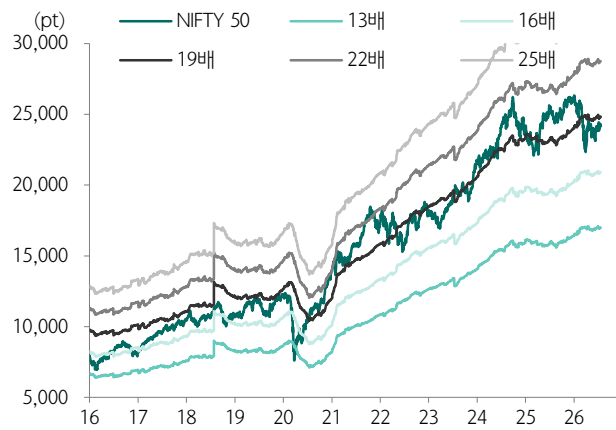
자료: CEIC, 하나증권

도표 2. 인도 달러/루피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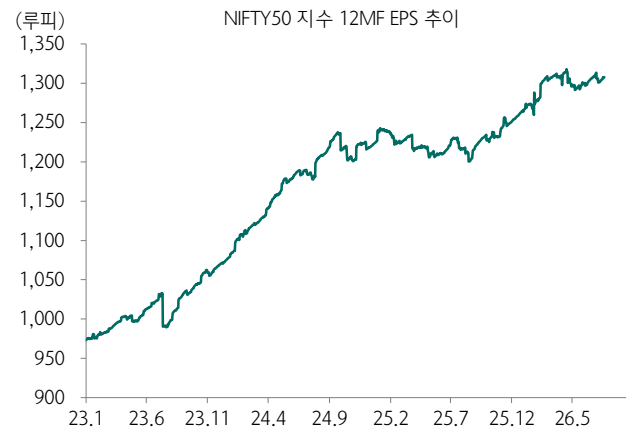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3. 인도 NIFTY50 지수 PER 밴드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인도 NIFTY50 지수 12MF EPS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